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02(금) ~ 2022.12.08(목)

제공일시 2022 12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02(금) ~ 2022.12.08(목)

제공일시 2022 12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7일 개막, 공시 의무화 가능성에 국내기업도 촉각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DB COP15.2)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
- 최대 의제는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채택 여부로, 현재 2021~2030년에 적용될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회의 지연 영향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임
- 생물다양성 문제는 기후변화에 이어 다음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화 등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사국총회 결과에 국내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임
-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올해 6월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IFRS가 합병한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가 이미 물과 생물다양성 부문의 ESG 공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새로운 공시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음

(비즈니스 포스트, 2022.12.04) 이상호 기자

2. 미 연준, 은행에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제안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은행들이 기후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음
- 이 제안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은행이 기후와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상세히 한 것으로, 공개 의견을 받기 위한 제안서를 받자는 표결이 FRB에서 6대 1로 승인됐음
- 미 연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사국(OCC)과 제휴, 각각의 독자적인 기후 리스크 대비 자체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FRB 계획은 은행들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스트레스테스트에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를 유동성 버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Reuters, 2022.12.03) Chris Prentice 기자

3. EU 의회, 공급망 실사법에 합의

- EU의회 의원들이 EU의 공급망 실사법, 즉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삼림벌채와 황폐화에 관련없음을 보증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
- 이는 커피, 코코아, 목재 제품 등 삼림벌채와 관련된 제품들은 EU 수출이 금지되며, 상품의 공급망에 관한 증명서가 제대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당초 커피, 코코아, 팜오일, 콩, 나무에서 가죽, 초콜릿, 가구를 포함했는데 EU의회에서는 고무, 숯, 인쇄용지, 특정팜오일 추출물 등도 실사에 포함된 상품으로 목록을 추가했고, 바이오디젤과 옥수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EU위원회는 향후 추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금융기관의 포함 여부는 막판 쟁점이었으나, EU위원회는 법안 시행 2년 후에 평가하는 것으로 양보했고, 이 법은 EU의회와 EU가 공식채택하면 20일안에 실시되지만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개월까지의 적용기간이 있음

(Euractiv, 2022.12.06) Kira Taylor 기자
(Reuters, 2022.12.07) Kate Abnett, Jake Spring 기자

1. G2. 美·EU ‘기후변화 대응’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검토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배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가 이뤄지는 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EU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배출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임
- 당시에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 나왔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는 불분명함

(이데일리, 2022.12.06) 신정은 기자

(조선비즈, 2022.12.06) 이용성 기자

2. 日 컨소시엄, 기업 공급망 ‘탄소 배출량 공유’ 추진

- 30여 개 일본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그린x디지털 컨소시엄)이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하여 공유하기 위한 실증 실험에 착수함
- 이번 실험은 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과 각 기업이 보유한 과거 측정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구성원들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유하기 위한 작업임
- 컨소시엄은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모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며, 이번 실험에서 성과를 확인하면, 앞으로 기업 공급망에 이 같은 시스템 연계 구조를 확대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2.12.08) 윤희석 기자

3. 노르웨이 국부펀드 “탄소중립 계획 없는 회사에 반대표 던질 것”

- 1조3000억달러(약 1720조원) 자금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탄소중립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의 이사회나 대표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 행사하겠다고 밝힘
- 니콜라이 탕엔 CE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ESG에 대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임원들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 이사회 구성에서 성별, 인종 등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 등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추구하는 ESG경영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 회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전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지분을 1.5%가량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 표시는 글로벌 기업들에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조선일보, 2022.12.08) 김효인 기자

1. '코로나 이후 최대' CES... 재계 총수들 출동 가능성

- 세계 최대 전자·IT박람회 'CES 2023'이 내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함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에는 약 1000개의 신규 업체를 비롯해 삼성, LG를 비롯해 구글, 소니, 아마존 등 총 2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함
-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라스베이거스에 쏠릴 전망이다
- 가장 먼저 참석 여부를 결정한 이는 최태원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승진 후 처음으로 맞는 CES인 만큼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CES에 참가했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는 이번에 불참함 대신, 현대중공업그룹이 2년 연속 참가함

(뉴시스, 2022.12.03) 이현주 기자

2. 정부, 기업 손잡고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으로 키운다

- 정부와 기업이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의 경쟁력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음
- 산업부는 이날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 ▲민간 생산능력 확충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음
- 국내 기업들도 탄소복합재 시장의 성장 전망에 따라, 2030년까지 생산시설 확충에 약 2조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한스경제, 2022.12.06) 정라진 기자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녹색채권 6400억 발행

- 환경부가 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4~11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사업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범사업에서는 은행 및 기업 6개사가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임
-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생산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임
-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임

(뉴시스, 2022.12.08) 오제일 기자

1. LG화학, '식물성 바이오 원료' 활용 고기능성 ABS 출시

- LG화학이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내놓고 미래 먹거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이번에 출시된 ABS 제품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가 활용됐고, 글로벌 친환경 소재(ISCC PLUS) 인증 획득까지 완료함
- ABS 분야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아시아에서 LG화학이 최초.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임

(서울와이어, 2022.12.04) 정현호 기자

(뉴스1, 2022.12.04) 신건용 기자

2. KCGS, ESG 우수기업 시상... 정부 ESG 정책 방향 제시

- 한국ESG기준원(KCGS)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2022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KCGS는 2002년 설립 이래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매년 개최함
- 올해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SC제일은행. 지배구조 부문에서 수상한 곳은 최우수기업 2사(현대글로벌·신한라이프생명보험), 우수기업 5사(SK가스·롯데하이마트·클래시스·농협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이었음
- ESG 부문에서는 대상 1사(KB금융지주), 최우수기업 1사(한국지역난방공사), 우수기업 5사(LG이노텍·현대바이오랜드·LX세미콘·JM금융지주·삼성카드)가 선정됨

(대한경제, 2022.12.02) 김진솔 기자

3. SK, 미국·호주서 광구 프로젝트... 삼성·롯데는 말레이와 CCS 협력

-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이산화탄소(CO2)를 포집·저장하는 CCS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음
- 5일 업계에 따르면, CCS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그룹은 SK이며, 포스코그룹도 CCS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에너지 기술 기업인 베이커 휴즈와 CCUS 및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서울경제, 2022.12.06) 전희윤 기자

4. 호주 총리 만난 최정우... "2040년까지 400억弗 투자" [뒷북비즈]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함
- 호주를 청정수소 개발의 최적 국가로 점찍은 포스코그룹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현지에 총 40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할 계획임
- 최 회장은 "앞으로 기존 철강 원료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수소·그린스틸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의 투자 분야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서울경제, 2022.12.02) 유창욱 기자

(굿모닝경제, 2022.12.04) 이세영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2.02(금) ~ 2022.12.08(목)

제공일시 2022 12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CDP, 환경 영향 A등급 받은 기업 5% 불과... 약 3만 개 기업이 환경 데이터 미공시

[\(edie, 2022.12.24\)](#)

- 글로벌 비영리 단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기업들의 환경 영향력을 평가해 환경 공시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A리스트(A-Lists)'를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함
- CDP는 기후변화, 산림 및 물 분야에서 기업들의 환경 영향력을 매년 평가해 발표함. 평가 기준은 기업의 배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과 일치하는지, 기업이 견고한 기후 이행 계획을 수립했는지, 환경 리더십, 환경 리스크 공개/인식/관리 등임. 전체 등급은 A부터 D까지이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게는 F등급을 부여함
- 기후 A리스트에 속한 기업들은 기후변화, 산림, 물 등 3가지 분야에서 최소 1개 이상의 A등급을 받아야 함. 이들 기업의 과반수(76%)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과학 기반 목표를 인정받았으며, 95%는 1.5°C 이하의 지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이러한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기후 전환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 CDP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A리스트에 편입된 기업들이 환경 투명성 측면에서 선두적임을 보여준다”며 “지난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A리스트에 속한 기업이 34% 증가했다”고 밝힘
- A리스트에 속한 기업들은 니베아, 어도비, 시스코, 코카콜라, 디아지오 등으로, 유럽 기업들이 절반 가까이에 해당됨. 3개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트리플 A리스트’에는 니베아 모기업인 베이어스 도르프, 일본 건강미용 다국적기업 카오, 가전회사 필리스, 로레알, 다농, HP 등 총 12개 기업들이 선정됨. 유니레버는 올해 평가에서 최고점인 100점을 받음
- CDP는 “2003년부터 환경 영향력 공시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1만 8700개 이상의 기업이 CDP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 산림, 물 중 최소 1개 이상의 환경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CDP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함. A리스트 기업은 330여 개로 전체 평가 기업의 2%에 불과했으며, 3개 환경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은 기업은 1.3%에 그침. 또한 총 25조 달러 규모의 약 3만 개 대기업들이 환경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투명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나 환경 관련 리스크를 줄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은 증가했지만 산림 보호 부문의 A리스트는 4%만 증가했으며, 물 보안 부문의 경우에는 A리스트 기업 수가 2021년 118개에서 올해 103개로 줄어듦. 이는 기업들의 노력이 기후변화에만 몰려있음을 시사함
- 나아가 지난해 D부터 A까지 점수를 받은 기업의 75%가 성과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 A리스트에 속한 기업수가 증가했음지라도 ‘소수임에 불과’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노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CDP는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 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CDP가 환경 리더십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산림, 물, 기후 위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함
-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자연 공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CDP의 최근 기후 설문조사에서도 “자연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년 간 생물다양성 영향을 분석하거나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짐

- CDP는 고객, 투자자 및 구매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환경 공시에 대한 요구를 점점 높여가고 있음을 지적함. 올해는 자산 130조 달러 이상의 투자자 680여 명과 구매력 6조 4000억 달러의 대규모 구매자 280여 명이 CDP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함
- CDP의 글로벌 기업 및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디렉터인 데트설 갈빈은 “환경 공시는 넷제로와 친환경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CDP 투명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함